

나의 투병이야기

1) 살을 빼던 이야기



나는 나의 몇 가지 투병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려고 한다.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이다.

금년(2014년)에 내 나이 만 79이다. 나는 7-8년전만 하더라도 사진에서 보듯이 140 파운드 나가는 비만증이였다. 미국 여자바지 치수 14를, 한국치수 99를 입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졌고, 허리와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 약을 먹어야겠다고 의사에게서 충고를 받았다. 나는

콜레스트롤 약이 간과 다른 기관에 지장을 준다는 말을 들었는지라 있는 병을 고치지 왜 없는 병을 만들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약을 안 먹고 혼자 해보기로 했다. 내가 주로 한 일이 Diet 와 운동이였다: Diet 에 있어서는 우선 1) 매끼 먹는 양을 딱 반으로 줄이고 2) 고기를 대폭 줄이고, 3) 기름 끼 (튀긴 음식)등을 금하고, 4) 등이 푸른 생선을 늘이고, 5) 채소와 과일섭취를 늘이고 6) Second 를 절대로 안 먹고, 7) 잡곡밥을 먹고 8) 흰밥, 흰 국수, 흰 빵 등 Enrich 된 것들은 모두 금했다. 9) 그리고 위의 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루에 적어도 2마일을 걷는 운동이였다. 나는



무릎이 아파서 2 마일을 걸기도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미 두 무릎 다 연골이 닳고 터진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했더니 한달 안에 10 파운드가 빠졌다. 그 다음 달부터 매달 5 파운드가 빠져서 다섯 달 에



30 파운드를 뺐다. 그래서 110 파운드로 내려갔을 때 그 무게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고, 허리의 통증이 없어졌다. 그러나 여행을 많이 해야 했는지라 잡곡밥과 등이 푸른 생선을 구워서 열려서 가지고 다녔다. 누구 집에 도착하는 대로 냉동고에 넣고 하나씩 꺼내서 데워 먹었다.

그런데 내가 배운 것이 Diet 만 해도 안되고 운동만 해도 안되고 둘

다 해야 되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2007 년 내 남편의 장례식에 온 옛날 친구들이 사진과 같이 변한 나를 알아볼 수 없다고 했고 내가 중병에 걸렸는가 물었다. 나는 지난 7-8 년간 몸 무게 110 파운드를 유지하고 있다. 바지 치수가 99 에서 88 로 줄었다가 지금은 77 을 입는다. 위의 뚱뚱한 사진과 아래의 가늘어진 사진을 비교해 보라. 나같이 작은 키의 사람에게 30 파운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다.



2) 내 다리가 펴진 이야기

나는 두 무릎의 연골이 각각 1997 년과 1998 년에 낡아서 터졌었다. 양의들은 내 나이보다 일찍 왔다고 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북에서 피난 나오면서 어린 다리가 너무 많이 걸었고, 전쟁 때 너무 많이 걸어서 남보다 일찍 연골이 절단 난 것 같았다. 침도 많이 맞았다. 어느 날 LA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그 이전에 내 무릎이야기를 들은 약사 한 분이 내 손에 약병 하나를 쥐어주었는데 그 것이 Glucosamine, 연골에 좋다는 보충영양제였다. 나는 너무 감사했다. 내가 그 약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성의가 없어 사 먹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내 손에 약을 쥐어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증거라 믿고 가슴 깊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후 10 년을 견뎠다. 물론 그간 계속해서 걸었다. 그런데 내게 큰 사고가 있었으니 회의 차 Louisville 총회에 가는 중이었다. Sea Tac 공항 안에서 그날 따라 지난 7 년간이나 여행해도 느끼지 못한 예감이 들어 에스카레이터를 타기 싫어서 에레베이터를 찾았다. 그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먼저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에레베이터를 찾지 못한 나는 뒤늦게 혼자 에스카레이터를 타게되었다. Escalator 가 중간쯤에 올라갔을 때 내 손에 든 여행가방이 뒤로 떨어지는 바람에 나도 함께 귀우로 몇 차례 굴러 무릎으로 딱 떨어졌는데, 그 Escalator 는 위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나는 반대로 밑으로 굴렀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Escalator 밖으로 나올 수도 없이 계속 굴러 올라가는 에스카레이터 위에서 고통하는데 위에서 누군가가 "에스카레이터를 멈추라" 고 소리지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아마도 나의 고통 하는 모습을 보았던 모양이었다. 에스카레이터는 멈춰지고 어떤 신사가 내려와서 나를 끌어내고 일으켜 세웠다. 그 사고는 머리나, 목이나, 허리나, 어깨나 다리가 붙어지고도 남음이 있는 대형사고였는데 나의 첫 마다기 "안 부러졌다" 였다. 일어나 걸어보니 몸이 말짱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여행가방을 들고 나는 걸어서 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그 긴 에스카레이터를 걸어서 올라갔다. 그러나 무릎은 좀 아팠다. Counter 에가서 비행기 자리를 받고 구부러진 여행가방의 손잡이를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에스카레이터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Medic 을 불러 진찰을 하니 골절된 곳은 없었으나 병원에 가겠냐고 묻기에 나는 저 비행기를 타고 회의에 가야 한다고 했더니 아픈 무릎에 얼음을 붙여주고 나는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무릎을 꿇은 자세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평상시에 시원치 않던 무릎은 계속 아팠다. 이런 대형사고에서 골절 하나 없이 성한 몸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보호해 주었다고 밖에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에스카레이터에서 그냥 약간 넘어졌어도 다리, 허리, 어깨가 골절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나는 이렇게 멀정하게 일어났으니 하나님께서 등에 업어서 하는 순회설교였다는 고백과 간증이 다시 나오는 경우였다.

걸는 것이 예전보다 불편하여 뼈 전문의사에게 상담했다. 그는 이제는 무릎을 수술해야한다고 했다. 내 무릎이 점점 휘어져서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엉치 까지 나간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엉치 수술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내 무릎이 이렇게 되도록 내가 수술을 안 하니 더 큰 일을 막기 위해 일어난 사고였던 것 같다. 그래서 2010 년 3 월과 10 월에 각각 한쪽씩 두 무릎을 수술했다. 수술하라는 날부터

10년을 Glucosamine 을 복용하면서 순회 설교 여행하고 하루에 2 마일씩 걷고 잘 산 셈이었다. diet 로 몸 무게가 줄면서 허리의 통증처럼 무릎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터진 연골이 더 나아지지는 않았다. 아래의 사진에서 수술전의 구부러진 다리와 수술후의 펴진 다리를 보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수술 후 매일 2 마일을 걷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나 Total knee replacement (무릎전체를 가는 수술)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11 가지 수술 중에서 제일 아픈 수술이었다.

3) 암 직전까지 간 산 역류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

의외에도 산 역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병이 암에 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듯하다. 그리고 산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도 알고 사는 것 같지않다. 위 벽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 나오는 산에서 보호받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그러나 산이 역류하여 식도를 타고 올라오게 되면 식도를 태울 만큼 강하고 독하다는 것이다. 내 식도는 그렇게 타서 암 직전 상태라는 것이다. 모든 암이 다 무섭지만 특히 식도암은 생명을 빨리 끝장내는 암이다. 나의 치료 경험을 독자들과 나누는 것은 같은 증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하면서 크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도 한결같이 병을 앓으면서 살고 일해왔다. 말하자면 병은 나와 항상 함께 동거하는 친한 친구이기도 하다. 금년까지 수술을 11 번 한 것 같다. 처음 20 대에 세브란스에서 충농증 수술로부터 시작해서 치질수술, 개복수술 (Partial), 미국에 와서 30 대부터 현재 80 대 거의 이르기 까지 담낭 수술, 충농증 수술 3 번, 파열된 각막 수술, 완전개복수술, 두 무릎 수술 (Total Knee replacements), 마지막으로 두 눈의 백내장 수술 등이다.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고도 살고, 일을 할 수 있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가 앓은 병으로 말하면 다섯 살에 이미 죽었어야 했고, 내가 겪은 아픔과 한으로 말하면 십대에 이미 완전히 망가져야 했고, 내가 범한 죄로 말하면 이십 대에 이미 사형 대에 서야 했고, 하나님의 부름에 불복종으로 말하면 삼십 대에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했고, 사십 대에 자식 잃고 살기를 거 부했을 때 나를 놓지 않고 내게 매달리신 주님의 은혜와 그 후에 내게 쏟아 부으신 축복으로 말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 기록해도 못다 하겠나이다.” 다음의 투병이야기는 최근의 것이다.

산역류 병 (Acid Reflux)

증상: 2012 년 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증상은 항상 속이 쓰리고, 아프고 소화가 안되고, 특히 아침에 깨면 쓴 맛이 목과 입에까지 올라오고, 때로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위장 속에 열이 나고 아프고 소화가 안되고, 산이 올라와 쓰고 고통스러웠고, 소화제를 달고 살았다. 변비가 심했고, 변이 고르지 않았고, 혈압이 높아 지난 20 여년간 혈압 약을 복용해 왔다. 오른쪽 골반이 아파 의자에 오래 앉을 수 없었고, 어깨와 허리가 아팠고, 콜레스트롤도 많이 높다고 했다.

진단: 그래서 2012 년 6 월에 내시경과 동맥을 Ultrasound 로 검사했다. 양의 위장 전문 의사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1) 산 역류를 너무 오래해서 식도암 직전상태라는 것, 2) 옛날에 수술한 흉문 쪽에 문제가 많아 변비를 더 계속하면 그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3) 동맥경화, 4) 콜레스트롤이 너무 높고, 5) 혈관나이가 100 살, 6) 고혈압, 7)소화기 (위, 장) 가 약화되어 더 이상 기능을 안 해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 오래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했다. 8) 허리에서 기인하여 우측골반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했고, 9) 다섯 살부터

않는 만성 기관지 천식도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들어났다. 내 몸이 종합병원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한의사의 진단은 내가 토양체질인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즉 열이 많은 사람인데 열을 많이 주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위장이 약해졌다는 것이고, 모든 병이 음식에서 온다고 진단했다.

치료 방법: 우선 양의인 주치의의 제안으로 식도암을 예방하고 치료가 된다는 Ameprazole 이라는 강한 약을 한달 간 복용했다. 결과는 완전히 식욕을 잃어, 먹는 일을 전폐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몇 달을 지나니까 기온도 점점 없어지고, 어지럽고, 잠만 계속 자고 싶은 상태에 이르렀다.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과 나 자신이 급히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 설상 가상으로 42년간 운전을 해도 없었던 대형 교통 사고 까지 내서 심한 타박상을 입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양약의 부작용과 합세하여 단식으로 반기를 든 나의 육신이 2012년 말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 말까였다. 그러니까 양약으로 하는 치료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양약은 완전히 끊었다.

그러던 중,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를 업고 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떤 천사 같은 한의사, 권종인 장로님께 소개되었다. 그와 그의 사모는 진정으로 천사였다. 노숙사역 하는 가난한 은퇴목사라고 내게 치료비 하나 받지 아니하고 무료로 치료를 해 주셨다. 그분의 치료는 체질 침과 음식 조절과 운동이었다. 침은 의사선생님이 처음에는 매주, 차차 2주에 한번, 혹은 3주에 한번 놓으시지만 음식조절과 운동은 내 몫이었다. 나는 내게 맞는 음식이 무엇일까가 항상 궁금해서 양의들에게 물었으나 대답해 주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권 장로님은 내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신 셈이다. 그는 환자의 병을 낮게도 해 주시지만 환자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나올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 방법이 마음에 들었다. 내가 나머지 일생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내 생명을 맡기는 일 보다 나 자신이 건강 유지 법을 배워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생각해서 그 의사의 치료방법이 마음에 들었다. 1) 침은 체질 침이라고 하시면서 위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라 하셨다. 2) 나의 체질이 토양이라고 판단하시고 음식조절에 들어갔다. 내가 주로 즐겨먹던 사과, 오렌지, 자몽, nut 종류, 꿀, 생강차, 인삼/인삼차, 도마도, 고추장, 미역, 해초, 김, 양파, 파, 세나몬, 고추 가루, 깨, 참기름, 감자, 고구마, 매운 김치, 염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찹쌀, 현미 쌀 등을 금하게 하셨다. 이렇게 좋다는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 같은 병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다. 나 같은 체질, 즉 토양체질이면서 나 같은 병을 가진 사람 한에서 적용되는 처방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체질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는 모든 딸기 종류, 배, 복숭아, 포도, 파파야, 감, 요구르트, 초콜렛, 보리차, 커피, 알로에, 두유, 우유, 우엉, 무청, 수박, 멜론종류, 가지, 생선종류, 쇠고기, 돼지고기, 쌀, 보리, 메밀, oats, Quinoa, 콩, 팥, 녹두, 양배추, 배추, 셀러리, 당근, 무, 마늘, 상추, 부추, 버섯, 시금치, 두부, 포도 씨 기름 등을 추천하셨다. 3) 암 직전까지 갔다는 식도의 상처 **치료방법으로는 1) 매운음식이나 산성이 많은 음식과 기름끼 많은 음식 (튀김등)을 전적으로 피한다. 2) 싱싱한 알로에**를 껍질을 벗기고 속의 미끈미끈한 것을 갈아서 마시면 식도의 상처가 치료가 된다고 하셨다. 이 것을 나는 빈속에 하루 서너 번을 마신다. 양을 너무 많이 마시면 설사를 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목음 가량 식전과 식후에 마셨다. 식전 과 취침 한 시간쯤 전에 마셔서 빈 속의 상처에 닿아서 치료가 되게 하고, 식사 후에는 산이 올라올 끼가 느껴지면 한 두 목음을 소화제처럼 마시기도

했다. 3) 밤참은 절대 금물이고, 4) 저녁을 매우 가볍게 그리고 일찍 먹는다. 특히 저녁에 단백질 음식을 피한다. 5) 몸 상위를 높이고 자고, 6) 혈압과 변비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딸기 주스, 즉 여러 가지 딸기종류, 때로는 그냥 블루베리와 알로에와 요구르트를 섞어 아침 식사 한, 두시간 전에 갈아서 마신다. 최근에는 7-8 가지 과일을 잘게 자르고, 요구르트를 섞어서 fruit cocktail 작은 한사발을 먹는다. 변비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내가 이해하기는 내가 먹어도 되는 음식들은 나같이 속에 열이 많은 토양체질에 맞는 것들이고, 매운 것과 어떤 과일들은 산이 많아 산 역류에 많은 악영향을 주는 음식인 것 같았다. 7) 매일 왕복 2마일을 걷는 운동을 시작했고 계속한다. 8)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팔과 어깨, 허리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9)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삼백탕이라는 것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는 무우, 무청, 우엉, 당근, 표고버섯 등 다섯 가지를 slow cooker 에 계속 끓여서 매일 마신다.

이렇게 식단을 완전히 바꿔 먹으니 몸이 또 반기를 들었다. 식이 요법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매운 것을 금하는 일이었다. 김치를 못 먹으니까 또 식욕을 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의 부작용으로 그러했지만 이번에는 일생 동안 즐겨 먹던 것들을 금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특히 고춧가루를 못 먹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마치 몸이 옛날에 좋아하던 것 안 주면 아주 안 먹을래 하는 듯이 그러지 않아도 못 먹어서 죽게 되었는데 먹는 취미를 더 잃게 되었다. 그래서 2012 년의 마지막 몇 달과 2013 년 초기 몇 개월 약 6 개월은 음식을 먹지 못했다. 이렇게 음식을 먹지 못하는 동안에도 나는 의사의 지시대로 계속했다. 기운이 없어도, 다 죽게 생겼어도 계속했다. 주위의 사람들은 한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서 다 죽어가는데 어리석다고 야단들 했다. 그러나 치료비도 못 받으시는 환자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지성으로, 진심으로 치료를 해 주시는 의사선생님과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 믿고 시키시는 대로 죽을지언정 계속했다.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이런 신뢰와 믿음이 매우 중요했다. 의사선생님 말씀이 이 과도기를 견디지 못해 도중하차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했다.

천식치료에 관해서는 추운 일기에는 항상 밖이나 안에서, 잘 때에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셨다. 그래서 마스크 여래 개를 준비해서 아래의 사진처럼 걸을 때나 어디서나 언제나 특히 환절기와 추운 일기에 마스크를 사용한다. 아래의 사진은 마스크를 쓰고 겨울에 걷는 모습이다. 겨울에는 손바닥만한 heating pad 을 바람이 들어오는 뒷등에 (목 바로 밑) 붙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다.



남과 자신을 사랑: 또한 나는 작년 (2012년) 말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지경에 갔을 때 남을 위해서 하는 봉사를 계속하면서 나 자신도 좀 즐겁게 해주고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집안 가구를 편한 것으로 바꾸고, 잠자리를 편하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고, 기쁘게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 내 두뇌가 불상할 정도로 컴퓨터에 책을 쓰고, 설교를 쓰는 일을 계속하지만 가난한 살림이지만 시간을 내서 친구들과 밥도 사먹고 함께 걸으며 즐긴다. 사진과 같이 유리창 앞에는 꽃을 걸고 매일 물을 주어 키우며 꽃들과 대화하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기도하면서 세상만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많은 것을 내려놓는 일을 한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줄였지만 계속한다.



나는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이 경우에는 치료 결과를 빨리 보려고 서두루지 않았다. 한방 치료는 양의처럼 증상을 다스리는 치료가 아니라 병의 근원을 다스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 같았다. 그래서 마음을 느긋이 먹고, 묵묵히 꾸준히 치료를 계속하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다. 한 두 달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효과를 볼 것이라고 믿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과정을 나와 함께 걸고 계심을 믿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대로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의지를 주시기를 청했다.

마지막으로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매일 매끼 먹은 음식과 알로에와 마신 물의 양과 운동회수를 spread sheet 에 chart 만들어 일년간 한의사 선생님께 가져가고, 매일 혈압을 몇 번 재서 같은 방법으로 chart 를 만들어 한의사와 심장 의사에게 가져갔다. 이렇게 일일이 chart 를 만들다 보니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가 생활화 되어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식당에 가면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자동적으로 한쪽에 밀어내 놓는다. 그리고 식당에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다. 그래서 식당에 가는 횟수를 많이 주렸다. 이런 chart 를 보시고 의사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치료 과정과 결과를 알게 된다. 환자와 의사가 병 치료에 팀이 된다.

결과:

- 1) 6 개월가량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몸이 단식을 포기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변화된 식단에 적응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업어서 치료하시는 방법을 쓰신 것 같았다.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 기운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 2) 알로에와 상반신을 높이는 잠자리의 변경으로 산 역류가 거의 줄었다. 취침 전에 빈 속에다 알로에 주스 뒤 목음 마시고 잔다. 자는 동안에 치료되게 하기 위함이다. 쓴 냄새가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 3) 속 쓰린 것이 다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된다. 이제는 김치를 전혀 안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 4) 혈압이 거의 정상화 되어 20 여년간 복용하던 혈압 약을 10 개월채 끊었다. 심장외과에게 계속 보고한다. 5) 온갖 딸기예다 (특히 블루베리) 알로에와 요거트를 넣어 같은 주스 혹은 fruit cocktail 과 삼백 탕은 변비문제와 혈압문제를 해결했다. 6) 운동과 하루에 2 마일을 걸어 허리와 골반이 아프던 것이 나왔다. 그러나 운동을 계속 안 하면 되돌아오려고 한다. 7) 이렇게 치료한지 일년이 되는 2013 년 6 월에 식도암으로 발전했는가 궁금해서 내시경을 다시 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식도에 암 균이 발견되지 않았고, 작년보다 호전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도 여전히 치료를 계속한다. 할렐루야를 높이 부른다. 위에 소개한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 더 이상 이세상에 있지 아니했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리고 의사선생님께 허리를 깊이 굽혀 감사를 드린다.

사진은 권종인 의사와 그의 인생 반려자이면서 한방 치료 팀이기도 한 사모님이다. 이분들을 만나고 싶으신 분은 그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라: (425) 455-1055. 그러나 의사선생님이 짧은 시일에 기적을 가져오기를 기대하지 말라. 병이 낫는가 마는가는 전적으로 환자에게 달렸다.

